

李商隱 詩의 淵源

李珠姬* · 禹在鎬**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唐代 선배 문인 |
| II. 唐代 이전 문인 | 1. 杜甫 |
| 1. 宋玉 | 2. 韓愈 |
| 2. 阮籍 | 3. 李賀 |
| 3. 潘岳 | IV. 나오는 말 |
| 4. 庾信 | |

I. 들어가는 말

한 시인의 풍격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 시인이 지은 시의 연원을 밝히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기초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시인의 풍격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형성될 수가 없으며, 대체로 전대 문인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시풍을 수용하고 이를 계승 학습하여 작품 속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은은 단순한 모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습한 것을 다시 융화하고 빛고 다듬어 자신의 개성을 더하여 작품 속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자신만의 풍격으로 재창조하였다.

이상은의 시에는 눈 앞에 펼쳐진 당 왕조의 쇠락을 마주하여 우울한 시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博士 修了 : 제1저자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 교신저자

대를 살며 품은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인생의 온갖 슬픔을 모두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한 인간의 울분이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은 感傷主義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듯 그 시의 기조는 시대와 인생에 대한 각종 감개로 가득하다. 이상은은 인생의 갖가지 감회를 진솔한 감정과 지극한 시어로 표현해내었기에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그 풍격이 “깊은 정이 멀고 아득하며[深情綿邈],¹⁾ 또한 화려한 시어로 수식되어 “깊고 넓어 빼어나게 아름다움[沈博絕麗]”²⁾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은은 자신의 문집 〈樊南甲集〉 서문에서 시의 풍격과 연원을 유추할 만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상은 자신이 徐陵과 庾信 등 화려함을 숭상하던 六朝 문인의 작품을 즐겨 읽었으며, 시와 문장은 각각 唐朝의 杜甫와 韓愈 등을 닮았다고 하였다.³⁾

朱鶴齡 또한 이상은 시의 연원을 밝혀 말하길 “이상은의 시는 국풍의 시인들로부터 이어진 소리요, 굴원과 송옥으로부터 물려받은 울림인데, 대체로 두보의 심후함을 얻어 변화시켜 창출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⁴⁾ 이는 이상은이 위로는 《詩經》과 《楚辭》의 정통을 계승하여 문학적 토양을 다졌으며, 아래로는 두보 등 동시대 선배 시인들의 예술적 정취를 학습하고 모방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현존하는 이상은의 시 600여 수 가운데 적지 않은 작품에서 唐代 이전 혹은 唐代 선배 시인과 그들의 작품을

- 1) 劉熙載, 〈詩概〉(《藝概》 권2, 廣文書局, 1964, 9쪽 앞면) “杜樊川詩雄姿英發, 李樊南詩深情綿邈, 其後李成宗派而杜不成, 殆以杜之較無稟白與.”
- 2) 朱鶴齡, 〈箋注李義山詩集·序〉(劉學鐸·余恕誠·黃世中, 《李商隱資料彙編》 上冊, 中華書局, 2001, 242쪽) “予箋杜詩於牧齋先生之紅豆山莊, 既卒業, 先生謂予曰: “玉谿生詩, 沈博絕麗, 王介甫稱爲善學老杜, 惜從前未有爲之注者.”
- 3) 李商隱, 〈樊南甲集序〉(劉學鐸·余恕誠, 《李商隱文編年校注》 第4冊, 中華書局, 2002, 1713쪽) “樊南生十六能著才論, 聖論, 以古文出諸公間, 後聯爲鄆相國、華太守憐, 居門下時, 敕定奏記, 始通今體, 後又兩爲秘省房中官, 恣展古集, 往往啜噓於任、范、徐、庾之間, 有請作文, 或時得好對切事, 聲勢物景, 哀上浮壯, 能感動人, 十年京師寒且餓, 人或目曰: 韓文杜詩彭陽章檄, 樊南窮凍人或知之.”
- 4) 朱鶴齡, 〈箋注李義山詩集·序〉(劉學鐸·余恕誠·黃世中, 앞의 책, 243쪽) “義山之詩, 乃風人之緒音, 屈宋之遺響, 蓋得子美之深而變出之也.”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은 시에서 이들 문인이 언급된 작품을 토대로 이상은 시의 연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⁵⁾

II. 唐代 이전 문인

중국 문학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唐詩는 先秦 시기 《詩經》과 《楚辭》에서 시작되어 길고 긴 시기를 거치며 변화 발전하였다. 각각의 시기마다 다른 유형 다른 풍격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가졌는데, 比興의 수법을 즐겨 사용하던 《詩經》과 《楚辭》, 질박함과 진실함이 두드러졌던 漢魏의 樂府詩, 형식과 기교를 중시했던 六朝의 宮體詩 등은 면면히 이어져 唐代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이상은은 시가 창작에 있어서 前代 시인들의 장점을 두루 받아들여 이를 계승하고 학습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들이 이룩해 놓은 문학적 성취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시 세계를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어 자신만의 풍격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해 馮浩는 “이상은의 시는 멀게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쫓고 가깝게는 육조를 본뒀다”라고 평하여,⁶⁾ 이상은의 예술적 성취가 선

5) 吳調公의 《李商隱研究》 제7장 〈李商隱詩歌의 淵源〉(上海古籍出版社, 1982, 155-187쪽)에서는 이상은이 선배 문인 屈原·六朝詩人·杜甫·李賀의 문학적 성취를 이어받았음을 서술하였다. 劉學鐸의 《李商隱傳論》 제18장 〈李商隱與宋玉〉(安徽大學出版社, 2002, 843-859쪽)에서는 感傷主義 전통의 계승과 이상은과 송옥의 같은 혹은 다른 면에 대하여 논하였다. 서봉성의 《李義山詩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3-57쪽) 제3장 제3절에서는 李義山詩의 淵源을 고찰하여 《詩經》과 《楚辭》로부터 받은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은 시의 연원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크게 唐 이전과 이후의 시인을 중심으로 좀 더 세분하여 다루어 보았다. 아울러 본고에 인용된 이상은 시는 劉學鐸·余恕誠의 《李商隱詩歌集解》(全5冊, 中華書局, 1998)를 저본으로 하였고, 시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中國語文學譯叢》에 2004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이주희의 〈李商隱詩譯註〉(1-36)를 따랐으며, 이지은·김준연의 번역서 《李義山詩集》(상중하) 또한 참고하였다.

6) 馮浩, 〈玉谿生詩箋註發凡·12條〉(劉學鐸·余恕誠·黃世中, 《李商隱資料彙編》

진 시기 특히 漢魏·六朝 시대에 활약한 문인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1. 宋玉

송옥(B.C294~B.C222?)은 屈原의 뒤를 이은 《楚辭》 작가로 辭賦에 능했다.⁷⁾ 벼슬길은 순조롭지 못하여 대체로 궁중의 文學侍從으로 있으면서 군주의 취미에 영합하여 辭賦를 짓는 일을 주로 담당하다가, 질시로 인한 참언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나 오랫동안 유랑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이상은의 삶의 궤적은 큰 틀에서 송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시인은 각각 한 왕조가 쇠퇴하여 멸망을 눈앞에 둔 楚나라 말엽과 唐나라 말엽에 태어났으며, 일생을 그저 君主나 幕主의 글을 보필하는 관직에만 머물며 품은 재주를 모두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불우한 문인으로 평가된다. 이상은은 송옥을 계승하고 추종하여 여러 시에서 송옥을 노래하고 있으니, 송옥에 대한 경모의 마음이 지극하다 할 만하다.

이상은은 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 송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다수의 작품에서 자신을 송옥에 비유했다. 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전대 작가를 추종하여 그 이름과 작품을 언급하는 것은 어찌면 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과 같이 생활 경력, 처지 조우, 사상 감정에서 문학 창작까지 다양한 송옥의 형상을 시 속에 묘사하여 곳곳에 개인의 불우와

下冊, 中華書局, 2001, 764쪽) “義山遠追漢魏, 近倣六朝.”

- 7) 이상은은 중국 문학사에서 첫 번째 浪漫主義 시인으로 평가받는 屈原의 유풀을 이어받았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상은은 특히 龔璣의 〈離騷〉에서 표현했던 ‘미인이 향기를 품은 난초와도 같다(美人香草)’와 같은 象徴의 수법을 학습하여 隱喻의 묘사법으로 감회를 넘치지 드러내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도 애정적인 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이상은은 남에게 말 못 할 마음속에 숨겨진 울분과 고충을 無題詩, 詠物詩 등 여러 題材의 시에서 완곡하게 전달하여 내어 깊은 정과 슬픈 곡조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편이 수없이 많다.

시대적 쇠망 등 감상적인 정서가 가득하게 묻어나도록 한 것은 드문 일일 것이다. 이상은은 같은 처지의 송옥에게 同病相憐의 情을 가졌을 것이다.

송옥은 ‘傷春’과 ‘悲秋’, 즉 봄은 아픈 계절이요 가을은 슬픈 계절이라는 주제를 처음 문학 작품에 사용하여 感傷主義 풍격을 형성하고 그 기초를 다진 문인으로 평가된다.⁸⁾ 이상은 시에 나타난 감상 풍격은 哀傷, 悲感, 孤獨, 淒涼 등의 정서로 표현되는데, 이는 송옥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송옥의 ‘아픈 봄과 슬픈 가을’이라는 계절의 변화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을 이상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적지 않은 공명을 불러일으켰기에 적지 않은 작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⁹⁾ 錢謙益은 그런 이상은의 시를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선명하고 곱지만, 봄을 아파하고 가을을 슬퍼한다.”고 평하였고, 또한 “이상은의 여러 무제 작품은 봄 처녀가 읽으면 애달프고 가을 선비가 읽으면 비통하다.”고도 평하였다.¹⁰⁾

8) 宋玉, 〈招魂〉(권용호, 《초사》, 글항아리, 2015, 293쪽) “강물은 맑고 언덕에는 단풍나무가 있는데, 눈을 들어 천 리 멀리 보니 봄날의 경치가 마음을 아프게 하네. 혼이시여 돌아오시오, 이 강남이 애처롭소.(湛湛江水兮上有楓, 目極千里兮傷春心, 魂兮歸來, 哀江南.)” 〈九辯〉(권용호, 같은 책, 246쪽) “슬퍼라, 가을 기운이여! 스산해라, 초목들 흔들리며 떨어지고 시들어, …… 길이 순탄치 않아 빈사는 자리를 잃고 마음이 편치 않네. (悲哉, 秋之爲氣也! 蕭瑟兮草木搖落而變衰, …… 坎廝兮貧士失職而志不平.)”

9) “하늘이 황량해지고 땅이 변하여 마음마저 비록 꺾이었지만, 봄날의 슬픔에 비한다면 의미는 많지 않으리라.(天荒地變心雖折, 若比傷春意未多.)” 〈曲江〉, “일찍이 봄날 상심을 괴로워함에 차마 듣지 못했거늘, 봉성의 어디에 둥지를 틀 쫓가지가 있으려나?(曾苦傷春不忍聽, 鳳城何處有花枝.)” 〈流鶯〉, “좋은 시절 아무 일이 없어, 그저 홀로 봄을 슬퍼하네.(年華無一事, 只是自傷春.)” 〈清河〉, “그대에게 묻는 봄을 아쉬워하는 구절은, 천 마디 말이지만 끊어내지 못한다네.(君問傷春句, 千辭不可刪.)” 〈朱槿花二首〉제2, “나는 봄을 슬퍼하는 마음에 스스로 취해있으니, 그대는 수고로이 석류주를 권하지 말게나.(我爲傷春心自醉, 不勞君勸石榴花.)” 〈寄惱韓同年二首〉제2, “물에 향기로운 뼈 묻은 것 놀래지 말지니, 지하에서도 봄 슬퍼하며 또 백발일 터이니.(莫驚五勝埋香骨, 地下傷春亦白頭.)” 〈與同年李定言曲水閒話戲作〉, “뜻을 다듬어 봄날이 지나감을 슬퍼하고 또 이별도 슬퍼하였으니, 인간 세상에는 오직 두사훈님만이 있을 뿐이라네.(刻意傷春復傷別, 人間惟有杜司勳.)” 〈杜司勳〉

10) 錢謙益, 《李義山詩集序》 “綺靡濃豔, 傷春悲秋,” “義山無題諸什, 春女讀之而哀, 秋士讀之而悲.” (劉學鐸·余恕誠·黃世中, 앞의 책, 213-214쪽)

이처럼 이상은과 송옥은, 슬픈 가을과 아픈 봄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처지가 곤궁한 가난한 선비 마음속의 애원과 감상, 그리고 그들의 시대·사회·인생에 대한 비애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감정 기조는 그들 창작의 기본 특징인 감상주의를 구성하였다.¹¹⁾

이상은이 직접 송옥을 언급한 작품은 〈송옥(宋玉)〉, 〈초 땅의 서글픈 노래(楚吟)〉, 〈자리에서 짓다(席上作)〉, 〈감회 있어(有感)〉, 〈광문관박사 정건의 옛집을 지나는 길에 들러(過鄭廣文舊居)〉, 〈구름을 읊다(詠雲)〉, 〈고상한 꽃(高花)〉, 〈유분을 곡하다(哭劉蕡)〉 등이 있으며, 〈초나라 궁궐(楚宮)〉, 〈지난날 벼슬하던 막부의 개봉공 [정아(鄭亞)]님께 받들어 부치다(獻寄舊府開封公)〉, 〈흔들리며 떨어지다(搖落)〉, 〈우연히 운을 바꾸어가며 72구를 지어 네 명의 동료에게 주다(偶成轉韻七十二句贈四同舍)〉 등에서도 송옥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모두 합하면 10수를 훌쩍 넘긴다.

먼저 제목에서 직접 송옥을 언급한 작품인 〈송옥(宋玉)〉을 보자.

何事荆臺百萬家,
唯教宋玉擅才華。
楚辭已不饒唐勒,
風賦何曾讓景差。
落日渚宮供觀閣,
開年雲夢送煙花。
可憐庾信尋荒徑,
猶得三朝託後車。

무슨 연유로 현대의 백만 가호에서는,
유독 송옥만 재주를 펼치도록 했던가?
〈초사〉는 이미 당륙에게 양보할 수 없었으니,
〈풍부〉를 어찌 경차에게 양보할 수 있었으리.
해 질 녘 저궁은 감상할 누각을 마련해주고,
이듬해에는 운몽에서 봄꽃을 보내온다네.
가련하구나, 유신이 황폐한 길을 찾았음이어,
오히려 삼조에 걸쳐 뒷 수레에 의탁할 수 있었네.

이 시는 송옥을 빌어 좋은 시절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감개를 기탁했다. 앞의 여섯 구는 當代의 으뜸이라 일컬어질 만한 송옥의 빼어난 재주를 극

11) 劉學鐸, 《李商隱詩歌接受史》(安徽大學出版社, 2004, 373쪽) “李商隱與宋玉, 則以悲秋與傷春的特殊方式, 表現了遭遇困頓的貧士內心的哀怨感傷, 以及他們對時代社會人生的悲哀. 這種感情基調, 構成了他們創作的一個基本特徵感傷主義.”

찬한 것이다. 굴원의 가르침을 받은 당륙과 경차 역시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재주였으며, 하늘 역시 그의 문장이 빼어날 수 있도록 渚宮과 雲夢에 환경을 만들어 도우니 송옥이 훌륭한 詞賦를 지어낼 수 있었음을 말했다. 구절마다 송옥을 향한 부러움을 드러내었지만, 그 행간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하니, 자신 역시 송옥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재주를 가졌거늘, 어찌하여 같은 재주를 가졌음에도 송옥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탄식이 묻어 있다.

다른 시 <자리에서 짓다(席上作)> 한 수를 더 보자.

淡雲輕雨拂高唐,	얇은 구름과 가벼운 비가 고당을 스치는데,
玉殿秋來夜正長.	옥전에 가을이 오니 밤이 정말 길기도 하구나.
料得也應憐宋玉,	추측건대 또한 응당 송옥을 안타까워하였으리니,
一生唯事楚襄王.	일생 동안 오로지 초나라 양왕만을 섬겼구나.

시의 原題 아래에 “내가 계주에서 막료로 있을 때 옛 막부의 주인이신 鄭亞님께서 가기를 내어주며 나에게 고당의 시를 짓게 하였다.(予爲桂州從事, 故府鄭公出家妓, 令賦高唐詩.)”라는 原註가 있으니, 연회의 자리에서 정아의 요청으로 雲雨를 소재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첫 구의 ‘淡雲輕雨’는 <高唐賦>의 神女를 떠올리게 한다. 시는 송옥을 시인 자신에 비유하고 楚襄王을 府主 정아에 비유하였으며, 또한 가기를 신녀에 비유하였다. 제3구의 ‘料得’ 두 글자는 부주를 섬기는 가기가 양왕을 섬겼던 송옥을 안타까워하였을 것을 짐작한 것으로, 가기와 막료는 비록 신분도 성별도 크게 다르지만, 문학시종으로 막부를 전전하며 언제나 부주에게 의지해야 하는 송옥과도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가기가 깊이 공감할 것이라 추측하였다. 시는 결국 송옥의 불우한 일생으로 시선이 모아지며, 그 속에 하늘가에서 영락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감개가 은근히 기탁되어 있는 듯하니, 시인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송옥을 읊은 몇 수의 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은은 재주를 가졌으

되 시대에 쓰임을 받지 못했던 송옥의 불우한 일생에 깊은 감개를 드러내었으며, 또한 그 속에 자신의 불우함에 대한 개탄 또한 반영하였다.

2. 阮籍

완적(210~263)은 魏·晉의 교체기에 曹氏 일족과 司馬氏 일족이 권력을 다투며 왕조가 바뀌던 시기를 살았던 문인으로 혼란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속의 벼슬을 멀리하고 放任하고 虛誕한 행위를 자행하며 玄談과 飲酒로 생을 보냈다.

〈詠懷詩〉 82수는 완적의 문학적 성취가 집약된 대표작인데, 시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속으로 느낀 여러 가지 감회를 읊은 연작시이다. 《詩品》과 《文心雕龍》에서도 완적의 시를 높이 평가하여, 감개의 말이 매우 많으며 그 뜻을 깊은 곳에 두어 귀착되는 취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거나,¹²⁾ 시에 숨겨진 뜻이 아득하고 깊기에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였는데,¹³⁾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출보다는 隱喻, 象徵, 用典 등의 수법을 통해 완곡하게 표현해내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참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을 말했다. 완적 시의 난해함은 혼란한 시대를 마주하며 정면으로 담아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인의 고뇌와 탄식이 작품을

12) 鍾嶸, 《詩品·上品》(이철리, 《역주시품》, 창비, 2007, 219쪽) “완적 시의 연원은 《시경》의 〈소아〉로부터 나왔다. 별례를 조각한 듯한 수식의 기교가 없다. 그러나 〈詠懷詩〉는 영묘한 정정을 빚어 깊은 생각을 발산해내고 있다. 말은 보고 듣는 범위 안에 있지만, 정은 팔방의 아득히 먼 바깥으로 부쳐 보내었다. 아득히 멀리 《시경》의 〈국풍〉과 〈소아〉·〈대아〉와 합치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찮음과 친근함을 잊게 하고 스스로 심원함과 광대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감개의 말이 매우 많으며, 그 뜻을 깊은 곳에 두어, 귀착되는 취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其源出於小雅, 無雕蟲之功, 而詠懷之作, 可以陶性靈, 發幽思, 言在耳目之內, 情寄八荒之表, 洋洋乎會於風雅, 使人忘其鄙近, 自致遠大. 頗多感慨之詞, 厥旨淵放, 歸趣難求.)”

13) 劉勰, 《文心雕龍·明詩》(최신희, 《문심조룡》, 현암사, 1975, 95쪽) “완적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숨겨진 뜻의 심원함만이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阮旨遙深, 故能標焉.)”

통해 상징적이며 은유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완적은 〈詠懷詩〉에서 “죽을 때까지 살얼음을 밟듯 살아왔으니, 누가 나의 이렇게 초조한 마음을 알겠는가?”라고 한탄하였는데,¹⁴⁾ 왕조의 교체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며 궁지에 몰릴까 항상 전전공공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통곡하는 완적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¹⁵⁾

이상은의 인생 조우는 공교롭게도 완적과 매우 흡사한데, 이상은 역시 憲宗부터 穆宗, 敬宗, 文宗, 武宗, 宣宗까지 여섯 번의 잦은 왕위 교체만으로도 정치적 혼란기에 생존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왕조가 바뀌고 당파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살아온 두 시인은 고독 속에서 항상 방황하며 내면의 울분을 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이상은은 길이 끊겨 통곡하던 완적을 빌어 갈 곳 없는 곤궁한 처지의 자신을 슬퍼하였는데,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돌(亂石)〉에 잘 드러나 있다.

虎踞龍蹲縱復橫,	범과 용이 웅크린 듯 종으로 또 횡으로 흩어져,
星光漸滅雨痕生。	별빛이 점점 잦아들더니 빗방울 흔적 생겨난다.
不須併礙東西路,	동과 서로 난 길을 모두 가로막지는 말지니,
哭殺廚頭玩步兵。	주방의 보병교위 완적이 통곡하다 죽는다네.

이 시는 大中 2년(848) 桂州 鄭亞의 막부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는 처

14) 阮籍, 〈詠懷詩〉 제33수(심규호, 《완적집》, 동문선, 2012, 371쪽) “낮 지나면 다시 저녁, 저녁 지나면 다시 아침. 얼굴빛 평소와 다르고, 정신 홀로 흐릿해 지니, 가슴속 애간장 끊어, 이런 변화 초래된다. 모든 일이란 끝이 없는데, 지모가 모자라 괴로운 차에, 일순간 두려운 것은 오로지 혼령이 바람 따라 날아가는 것. 일생동안 살얼음 걸으면서, 초조한 이 마음 누가 알아주리오.(一日復一夕, 一夕復一朝. 顏色改平常, 情神自損消. 胸中懷湯火, 變化故相招. 萬事無窮極, 知謀苦不饒. 但恐須臾間, 魂氣隨風飄. 終身履薄冰, 誰知我心焦.)”

15) 《晉書·阮籍傳》 “때때로 마음 내키는 대로 혼자 수레를 몰고 길이 아닌 곳으로 내달리곤 하였다. 수레가 더 나아갈 수 없이 길이 막혀 있으면, 문득 통곡하며 되돌아오곤 하였다.(時率意獨駕, 不由徑路. 車迹所窮, 輒慟哭而反.)”

지에 놓인 자신이 어두운 밤에 어지러이 종횡으로 널려져 있는 돌을 보고 감회가 일어 지은 것이다. 牛·李 양당이 서로 배척하던 만당의 정치환경 속에서 우당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이당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양당 사이에서 억압받고 방황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표현하고 있다. 1·2구는 만당의 암울한 정치 국면을 나타내었고, 3·4구는 수레를 몰고 가다가 길이 끊겨 통곡한 완적의 고사를 빌어 길이 막혀 조정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막부의 어느 곳에도 마음 놓고 머무를 수 없는 자신의 곤궁한 처지와 억눌린 답답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혹자는 막다른 길을 마주한 곤궁한 처지의 슬픔뿐만 아니라 어진 인재를 폐기해버린 한도 있다고 평했는데,¹⁶⁾ 한 가닥 출로도 없이 딱 막힌 길에서 품은 뜻을 실현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실의의 아픔에 울분과 고뇌가 극에 달하여 터져 나오는 울음을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는 시인을 마주하는 듯하다.

〈亂石〉 외에 완적의 행적을 인용한 시로는 〈화산의 손일인에게 부치다(寄華嶽孫逸人)〉¹⁷⁾, 〈회포를 노래하며 비서성의 옛 동료에게 부치는 26운(詠懷寄祕閣舊僚二十六韻)〉¹⁸⁾ 등이 있으며, 또 이상은의 문장 중 〈경조운 대감께 올리는 글, 둘째(獻相國京兆公啓二)〉¹⁹⁾에서는 완적의 〈영회시〉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경》과 《초사》에서 시작된 비홍의 전통은 완적 등의 시인을 거쳐 이상은에게로 이어졌다. 이상은의 시도 시의를 모호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16) 馮浩, 《玉谿生詩集箋注》徐乾學評此詩(劉學鐸·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 2册, 中華書局, 1998, 820쪽 箋評 재인용) “不但窮途之悲, 兼有蔽賢之恨.”

17) 李商隱, 〈寄華嶽孫逸人〉 “다만 틀림없이 완적을 만났으니, 길게 휘파람 불며 난봉의 소리를 낸 것이라.(唯應逢阮籍, 長嘯作鸞音.)”

18) 李商隱, 〈詠懷寄祕閣舊僚二十六韻〉 “길이 막혀 바야흐로 입을 닫으니, 고요함으로 이겨 다만 턱을 꺾는다.(途窮方結舌, 靜勝但摺頤.)”

19) 李商隱, 〈獻相國京兆公啓二〉 “완적의 품은 생각을 부친 〈詠懷詩〉 82수의 그윽한 감정은 보기 드물며, 강입의 〈雜體詩〉 30수에 내가 옛것을 본뜬 것 비교하여 맞춰보니 전부 소홀하네.(八十首之寓懷, 幽情罕備; 三十篇之擬古, 商較全疏.)”(劉學鐸·余恕誠, 《李商隱文編年校注》 第5册, 中華書局, 1919쪽)

것이 많아 난해하기에 혹자는 이상은은 시를 잘 지었는데, 그 문장이 높고 뛰어나며 기이하고 예스러우며, 말이 깊이가 있으며 뜻이 깊고 오묘하다고 평하였다.²⁰⁾ 특히 이상은의 無題詩는 시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 무제시는 ‘無題’를 시제로 삼은 것, 시의 첫 구를 시제로 삼은 것, 시의 몇 자를 취하여 시제로 삼은 것 등을 모두 무제시의 범주로 삼는다면 약 100여 수에 달한다. 그 가운데 시의 첫 구를 제목으로 삼은 <금슬(錦瑟)>은 시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시의 주제를 ‘自傷’설·‘悼亡’설·‘作詩’설 등으로 보아 그 견해가 분분하며, 역대 평론가들 역시 종종 이상은 시의 아름다움과 난해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¹⁾

이상은의 시는 인생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리를 깊이 있게 전달하며 취지를 어렵פות하게 상징적으로 암시하여 난해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분은 깊은 곳에 뜻을 두어 시의 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완적의 시와 유사점이 있다 볼 수 있겠다.

3. 潘岳

반약(247~300)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奇才로 인정받았으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으며, 원한 관계로 인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모함을 받아 滅族의 禍를 당한 불우한 시인이다. 감상적 정서의 표현에 뛰어났으며 시의 文彩가 아름답고 화려하였는데, 특히 죽은 사람의 생전 공덕을 칭송하며 애도를 표시하는 글의 한 형식인 誄辭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

20) 辛文房, 《唐才子傳》(藝文印書館, 刊年不詳, 6쪽 뒷면) 卷4 “商隱工詩, 高邁奇古, 言深旨遠.”

21) 梁啓超, 〈中國韻文里頭所表現的情感〉(陳引馳, 《梁啓超學術論著集·文學卷》, 華東師範大學, 1998, 169쪽) “義山集中近體的錦瑟、碧城、聖女祠等篇, 古體的燕臺、河內等篇……這些詩, 他講的什麼事, 我理會不着: 折開一句一句叫我解釋, 我連文意也解不出來, 但我覺得他美, 讀起來令我精神上得一種新鮮的愉快, 須知, 美是多方面的, 美是含有神秘性的. 我們若還承認美的價值, 對於此種文學, 是不容輕輕抹煞啊!”

그의 대표작인 〈悼亡詩〉 3수는 사별한 아내를 향한 애절한 정과 비애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시로 평가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을 주제로 하는 愛情詩는 거의 모든 문인의 작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 이상은의 애정시는 중국 시단에서 중국 애정시의 백미로 꼽힐 만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지닌 시로 평가된다. 이것은 애정에서 비롯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묘사해내었기 때문이다. 도망시에서도 이상은은 예술적 감각은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이상은은 開成 3년(838) 27세에 당시 涇原節度使 王茂元の 딸과 혼인하였으나, 大中 5년(851) 나이 40에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사별하게 되었다. 겨우 13년에 불과했던 짧은 부부의 인연이었으나 함께 했던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기에 아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를 많이 남겼다.

이상은에게 부인 王氏는 좀 더 특별한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린 나이에 牛黨의 인사로 여겨지던 令狐楚의 눈에 들어 진사에 급제하여 判官 등의 벼슬을 지내며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으나, 李黨의 인사로 여겨지던 왕무원의 사위가 되었다. 이상은은 아내 왕씨와의 혼인으로 ‘집안의 은혜를 잊고 이익에 의지하여 구차하게 영합한다.’라는 세간의 질시를 받으며 당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봉당 세력에게 배척당한 채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영락한 신세로 떠돌게 되었다.²²⁾

가난한 살림에 벼슬길마저 막혀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니 아내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을 것이므로 평소 살뜰히 아내를 챙겨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남편을 멀리 임지로 보내는 순간에도 속 깊은 아내는 병마로 힘에 겨워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홀로 삭혔으니 무던 남편이 알아챌 리 없었고 아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해가 바뀌어 집으로 돌아온 이상은은

22) 《新唐書·李商隱列傳》(中華書局, 1975, 5792쪽) “開成二年, 高鏊知貢舉, 令狐綯雅善鏊, 獎譽甚力, 故擢進士第. …… 王茂元鎮河陽, 愛其才, 表掌書記, 以子妻之, 得侍御史. 茂元善李德裕, 而牛李黨人壘譏商隱, 以爲詭薄無行, 共排擯之. …… 綯以爲忘家恩, 放利偷合, 謝不通.”

아내가 생전에 뜬던 거문고만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빈방에 남겨져 있음을 보고 아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규방의 노래(房中曲)〉²³⁾라는 도망시를 지어 짝을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쓸쓸한 모습과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그려내었다.

이상은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남겼는데, 〈아내를 잃은 뒤 동쪽으로 가다가 산관에 내린 폭설을 피하며(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재동의 절도사 막부의 막료 직에 부임하여 같은 해의 과거 합격자인 외지원외랑을 남겨두고 이별하며(赴職梓潼留別畏之員外同年)〉 등의 작품은 시의 제목 혹은 시의 본문에서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 지은 작품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대중 5년(851) 喪妻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 〈처남 왕십이와 동서 원외랑 한외지가 나를 방문하고서 조출한 술자리로 불렀으나 당시 나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 않고 이 시를 부친다(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 見招小飲, 時余以悼亡日近, 不去, 因寄)〉 시의 3·4구에는 “사람이 끊어지고 없는 곳에 주렴이 땅까지 드리웠고, 먼지를 털어내려 할 때 대자리가 침상에 놓여 있네(更無人處簾垂地, 欲拂塵時簾竟牀)”라고 한 것은 반약의 〈悼亡詩〉 제2수 “뒤척이며 자리를 보니, 긴 대자리 놓은 침상은 비어있네. 빈 침상엔 맑은 먼지만 쌓이고, 빈방에는 슬픈 바람만 불어오는데.(展轉眄枕席, 長簾竟牀空. 牀空委清塵, 室虛來悲風.)”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평범해 보이는 빈방의 정경

23) 李商隱, 〈규방의 노래(房中曲)〉 “장미는 그윽하고 소박한 눈물 쏟아내고, 푸른 가지는 동전같이 작은 꽃을 달고 있네. 어여쁜 아들 바보 같음은 구름과 같은데, 해를 안고 있는 서편 주렴으로 날 밝아오네. 베개는 용궁의 보석인데, 가을 물결 색을 가른 듯하네. 고운 대자리는 부드러운 살갓을 잃었으며, 다만 펼쳐진 푸른 비단 이불만 보인다네. 떠오르는 것은 지난해 봄날, 말은 없었으나 가슴 쓰라린 슬픔을 가졌었네. 돌아와 보니 이미 보이지 않는데, 비단 거문고는 사람보다 오래되었네. 오늘은 계곡 아래의 소나무요, 내일은 산 위의 황벽 나무라네. 근심으로 천지가 뒤엎어지는 때 되면, 서로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리라.(薔薇泣幽素, 翠帶花錢小. 嬌郎癡若雲, 抱日西簾曉. 枕是龍宮石, 割得秋波色. 玉簾失柔膚, 但見蒙羅碧. 憶得前年春, 未語含悲辛. 歸來已不見, 錦瑟長於人. 今日澗底松, 明日山頭蘂. 愁到天地翻, 相看不相識.)”

을 묘사한 것이지만 주렴을 걷어 올리지 않고 대자리 침상이 오래도록 비어있으니 아내가 죽고 없는 것으로 인한 슬픔이 묻어난다. 이에 張謙宜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작품의 이와 같은 시어는 진정 구슬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였고, 錢用惕은 “차분하고 숙련되게 써 내려갔지만 참혹하리만큼 구슬픈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것 같으니, 당대 이후로 이러한 풍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²⁴⁾

이 밖에도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지은 시가 많고, 그 가운데 도망시를 지은 반약을 시구에 언급한 작품이 있는데, 〈병가를 신청하고(屬疾)〉, 〈초국리 이씨집의 남원을 지나며, 두 수(過招國李家南園二首)〉, 〈배형에게 부치다(寄裴衡)〉, 〈유분을 곡하다(哭劉蕢)〉, 〈오언으로 덕망을 서술하고 감정을 그려낸 시 한 수 40운을 두씨댁 일곱째 형님인 좌복야 상공(杜棕)께 바치다(五言述德抒情詩一首四十韻 獻上杜七兄僕射相公)〉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병가를 신청하고(屬疾)〉라는 시 한 수를 보자.

許靖猶羈宦,	허정은 여전히 타관에서 벼슬하며,
安仁復悼亡.	반약은 또다시 아내를 애도한다네.
茲辰聊屬疾,	이날은 잠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何日免殊方.	언제쯤이면 타향살이를 면하려나?
秋蝶無端麗,	가을 나비는 까닭도 없이 고우며,
寒花更不香.	차가운 꽃은 더는 향기롭지 않네.
多情眞命薄,	정이 많아 참으로 운명이 기박하니,
容易卽回腸.	쉬이 금세라도 창자가 뒤틀린다네.

시어 「殊方」으로 보아 시는 대중 6년(852) 梓州 막부에 있으며 지은 것 같다. 시의 전반부는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이 타향에 머물며 喪妻로 인한 슬픔을 안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시의 후반부는 고운 나비와

24) 張謙宜, 《親齋詩談》 “悼亡作如此語, 眞乃血淚如珠”, 錢用惕 《李義山詩辨正》 “平平寫去, 淒斷欲絕, 唐以後無此風格矣.”(劉學鐸·余恕誠, 앞의 책 3冊, 1207 쪽 箋評 재인용)

향기로운 꽃은 가을 추위에 곧 사라지니 이는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난 아내를 떠올리게 하며, 기막힌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말했다.

이 외에도 이상은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낙양의 崇陽坊에 있는 장인 왕 무원의 옛집에 들러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서정(西亭)〉, 〈싸늘한 밤(夜冷)〉, 〈정월 승양의 저택에서(正月崇讓宅)〉, 〈승양의 저택에 자미가 꽃을 피우려 하다(臨發崇讓宅紫薇)〉, 〈승양의 저택 동편 정자에서 술 취한 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짓다(崇讓宅東亭醉後沔然有作)〉, 〈7월 29일 승양택의 연회에서 짓다(七月二十九日崇讓宅宴作)〉 등 적지 않은 시를 썼는데, 혹자는 〈정월 승양의 저택에서(正月崇讓宅)〉라는 시를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애정이 깊어 이 시를 읽으면 부부 사이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지니, 潘岳 이후 뛰어나게 잘 지은 시라고 이 시의 고아한 풍격을 높이 평가하였다.²⁵⁾

반약의 도망시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서술한 것이라면, 이상은의 도망시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운 심정과 타관살이에 대한 쓸쓸한 정회 등이 시에 함께 표현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고독하고 처량한 신세에 대한 감개를 함께 묶어 시에 녹여내었다. 이것이 반약의 도망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이상은 도망시가 지닌 예술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다.²⁶⁾

25) 張采田, 《李義山詩辨正》(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3冊, 1504쪽 箋評 재인용) “悼亡詩最佳者, 情深一往, 讀之增伉儷之重, 潘黃門後絕唱也. ……”

26) 李平權, 〈悼與自悼的悲情哀歌-李商隱의 幾首悼亡詩探析〉(皖西學院學報, 2005, 90쪽) “從悼亡詩發展脈絡來看, 李商隱의 悼亡詩不僅對傳統的悼亡詩有所學習有所繼承, 而且有所創新有所發展, 對緊承其後的悼亡詞的出現和發展產生了一定的影響. 與傳統的悼亡詩如晉代潘岳의 〈悼亡詩〉唐代元稹의 〈遣悲懷〉相比, 李商隱의 悼亡詩學習和繼承了其長於抒情的特點, 并在借景寫情、心理刻劃, 比興象徵等方面有所汲取和發展. 而在沈痛的悼亡之情中織入時世身世之感和人生之慨, 則是李商隱의 悼亡詩對後世悼亡詞產生一定影響的重要原因之一.”

4. 庾信

유신(513~581)은 南朝 梁의 사신으로 北朝 西魏로 파견되었다가 양나라가 멸망하여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게 되었으며, 다시 서위가 멸하고 北周가 들어서게 되었다. 망국의 신하로서 절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한과 고뇌,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생을 마감했던 불우한 시인이다.²⁷⁾ 두보는 유신의 작품에 대해 “유신의 문장은 늙어서 더욱 무르익어, 구름을 오르내리는 건필에 의사는 중횡무진하네.”²⁸⁾ “유신의 평생은 가장 쓸쓸해도, 만년의 시부는 강관을 뒤흔드네.”라고²⁹⁾ 호평하였다.

이상은은 <광문관박사 정건의 옛집을 지나는 길에 들러(過鄭廣文舊居)>, <송옥(宋玉)>, <천우 이장군께서 궁궐로 부임해 가심을 전송하며, 50운(送千牛李將軍赴闕五十韻)>, <노현경의 비보를 듣고서 온정군에게 부치며 묻다(聞著明凶問寄飛卿)> 등의 시에서 유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천우 이장군께서 궁궐로 부임해 가심을 전송하며, 50운(送千牛李將軍赴闕五十韻)>을 보자. 왕무원의 사위로 이상은과는 同壻지간인 천우 이장군이 京職에 임명되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자 그를 전송하며 지은 100구로 이루어진 장편시인데, 전체 시는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시의 마지막 여덟 구만 인용해본다.

27) 유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는 <哀江南賦>, <擬詠懷> 72수 등이 있는데, <哀江南賦>는 양나라 흥망 과정의 묘사를 통해 어지러운 시국과 처량한 신세에 대한 슬픔을 그저 비애로써 읊어낼 뿐임을 말했다. <영회시를 본받아(擬詠懷)> 72수는 완적의 <詠懷詩> 82수를 본받아 자신의 내적 갈등과 번민을 읊은 것으로, 그중 제1수는 망국의 슬픔을 견디며 억류된 북조에서 속된名利를 쫓아 버슬살이하며 절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조적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28) 杜甫, <장난삼아 절구 여섯 수를 짓다(戲爲六絕句)> 제1수 (이관성, 《두시경전》 3권, 문진, 2015, 48쪽) “庾信文章老更成, 凌雲健筆意縱橫.”

29) 杜甫, <옛 자취를 회고하며(詠懷古跡五首)> 제1수(이관성, 같은 책 4권, 110쪽) “庾信平生最蕭瑟, 暮年詩賦動江關.”

.....

庾信生多感,
楊朱死有情。
絃危中婦瑟,
甲冷想夫箏。
會與秦樓鳳,
俱聽漢苑鶯。
洛川迷曲沼,
煙月兩心傾。

.....

유신은 살아서도 감회가 많았으며,
양주는 죽어서도 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의 거문고 소리 처량하며,
남편 그리는 쟁의 은갑이 차갑습니다.
진나라 누대의 봉황과 만난다면,
한나라 궁궐의 피꼬리 소리를 함께 들을 것입니다.
낙수의 굽이진 연못에 마음을 뺏기니,
운무에 싸인 달에 두 마음이 기웁니다.

‘多感’은 슬한 감회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조와 북조를 거치며 굴곡 많은 인생의 고초를 경험한 유신이 살아생전 가졌을 망국의 슬픔, 떠나온 고국을 향한 그리움, 떠도는 신세에 대한 서글픔 등 수많은 감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안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이천우를 향한 부러움과 영락하여 먼 곳을 떠돌며 아내와 떨어져 있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듯하다.

앞에서 인용한 〈송옥(宋玉)〉 7·8구에서도 “가련하구나, 유신이 황폐한 길을 찾았음이며, 오히려 삼조에 걸쳐 뒷 수레에 의탁할 수 있었네.(可憐庾信尋荒徑, 猶得三朝託後車.)”라고 유신을 언급하였는데, 유신이 후경의 난을 당하여 우연히 송옥의 옛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문학적 재능으로 세 조정을 모시는 것이 가능하였으니, 마치 송옥이 남은 庇護를 베풀어 삼조를 받들어 모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 듯함을 말했다. 유신을 부러워하면서도 또한 文宗·武宗·宣宗 삼대의 조정을 거치는 동안 지방의 절도사 막부에서 막료로 떠돌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개탄함이 행간에 묻어난다. 깊고도 완곡한 표현으로 뜻을 전달하니 깊은 여운이 감도는데, ‘猶得’ 두 글자에 시인의 슬픔이 묻어있다. 다른 시 〈광문관박사 정건의 옛집을 지나는 길에 들러(過鄭廣文舊居)〉를 보자.

宋玉平生恨有餘,	송옥은 평생토록 남은 한이 있었기에,
遠循三楚弔三閭.	멀리 초 땅을 두루 돌며 삼려대부를 애도하였네.
可憐留著臨江宅,	가련하게도 임강의 저택을 남겨놓은 것은,
異代應教庾信居.	다른 시대에 응당 유신이 머물도록 한 것이리라.

이 시는 이상은이 桂管에서 長安으로 돌아온 후 장안의 曲江과 가까운 鄭虔의 옛집에 들러 감개가 일어 지은 것이다. 유신은 西魏의 사신으로 가기 전 侯景의 난으로 궁성이 함락되자 江陵으로 도피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강릉에 송옥의 옛집이 있으며 유신이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1·2구에서 송옥은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굴원을 조문하여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람을 말했다. 3·4구는 떠돌이 신세의 유신이 강릉에 남겨진 송옥의 저택에 머물며 송옥의 풍류를 이어받았음을 말했다. 이 두 구는 특히 유신의 〈哀江南賦〉의 한 구절 “송옥의 집 떠풀을 베어내고, 임강왕의 집 앞 길을 지나갔다네.(誅茅宋玉之宅, 穿徑臨江之府.)”를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이상은은 정건의 옛집을 방문하면서 자기 시대에 이해받지 못한 문학인이 세월을 뛰어넘어 다른 시대가 되어야 진정한 이해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떠올린 것인지도 모르며, 자신 또한知音이 없음을 애달파하는 마음이 언외에 있다.

이상은은 자신의 시가 任昉·范雲·徐陵·庾信 등 육조 시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는데,³⁰⁾ 역대의 비평가 중에서도 이상은의 시가 유신에게서 나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으니,³¹⁾ 이상은이 육조의 시인

30) 徐陵은 庾信과 함께 세상에서 徐庾體로 불렸는데, 엄려한 시풍의 宮體詩에 뛰어났다. 서릉의 작품은 유신보다 그 수량이 적으며 시의 풍격 변화가 유신보다 다소 적기에 본고에서는 유신이 언급된 작품을 위주로 연원을 살펴보았다. 이상은의 시에 유신을 언급한 시가 1수 있는데, 〈서릉체를 본떠 옷 갈아입는 것을 시중드는 이에게 주다(效徐陵體贈更衣)〉라는 시가 바로 그것이다.

31) 何焯, 《義門讀書記·李義山詩集》(商務印書館, 刊年不詳, 1쪽 뒷면), 卷57 “의산의 오언시는 유신에게서 나왔고, 칠언시는 두보에게서 나왔으므로, 그 원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시의 훌륭한 곳을 알기 어렵다.(義山五言

중 특히 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Ⅲ. 唐代 선배 문인

중국 문학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며 시가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던 唐代에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시인이 등장한다. 초당을 시작으로 성당을 거쳐 중당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뛰어난 시인들이 출현하여 각기 저마다 다양한 개성으로 각자의 시풍을 형성하여 唐詩를 화려하게 꽃피웠다.

이상은은 만당의 시인과 마찬가지로 유미적인 색채가 가득한 화려한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상은의 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시인의 고독과 슬픔을 담아내었다. 어쩌면 이상은 시에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움은 내적인 고뇌와 비애로 가득한 감상적인 정서를 애써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인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된 감상이 작품의 표면에서 예민하고 섬세한 필치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승화되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1. 杜甫

당나라의 시인 가운데 두보의 영향을 받은 시인이 많지만, 이상은은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침울한 정조는 沈鬱頓挫로 표현되는 두보 시의 풍격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또 감상주의 기조의 시인인 이상은의 작품 가운데는 나라의 안위를 근심하고 백성의 고통을 함께 마음 아파하며 당시 사회상을 담아낸 시로 <곡강(曲江)>, <감회 있어, 두 수(有感二首)>, <거듭 감회 있어(重有感)>, <서쪽 교외로 나가 지은 100운(行次西郊作一百韻)>, <수안공주의 출가(壽安公主出

出於庾開府，七言出於杜工部，不深究本源，未易領其佳處也。”

降)》, 〈주필역(籌筆驛)〉, 〈회양로(淮陽路)〉, 〈수나라 궁궐(隋宮)〉, 〈수나라 군사 동쪽 정벌(隋師東)〉 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은 두보의 대표적인 사회시 ‘三吏’와 ‘三別’을 비롯한 〈曲江〉, 〈北征〉, 〈詠懷古跡〉 등과 같은 대작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은은 시의 제목에서 두보의 시를 학습하고 모방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먼저 〈촉에서의 이별연에서 두보를 모방하여 짓다(杜工部蜀中離席)〉를 보자.

人生何處不離羣,
世路干戈惜暫分。
雪嶺未歸天外使,
松州猶駐殿前軍。
座中醉客延醒客,
江上晴雲雜雨雲。
美酒成都堪送老,
當壚仍是卓文君。

인생 어느 곳에 무리를 떠나는 일 없으리마는,
세상이 전쟁통이라 잠간의 헤어짐도 안타깝다네.
설령에서는 하늘 밖으로 간 사신이 돌아오지 않았고,
송주에는 여전히 궁전을 지키던 군대가 주둔해 있네.
술자리에 취한 손님은 안 취한 손님 불러들이고,
강 위의 맑은 구름은 비구름과 뒤섞인다네.
맛난 술 있는 성도는 노년을 보낼 만하니,
목로를 맡고 있는 미인은 여전히 탁문군이라네.

대중 5년(851) 겨울 東川節度使 柳仲郢의 掌書記로 있던 이상은은 명을 받고 西川節度使 막부의 推獄(법률 담당 참모)으로 갔다가 6년(852) 봄 일을 마치고 동천으로 돌아왔다. 시는 成都를 떠나기 전 이별연에서 지은 것으로, 시인은 玄宗의 蒙塵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劍南節度使 嚴武의 節度參謀로 있었던 두보를 떠올렸고, ‘蜀中離席’ 앞에 ‘杜工部’ 세 자를 붙여 두보의 풍격을 모방하여 지었음을 밝혔다.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 또한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별하고 떠나가면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전쟁통이라 잠간의 이별일지라도 그 이별이 슬프고 침울할 수밖에 없음을 말했다. ‘雪嶺’과 ‘松州’는 四川 지역으로 回鶻과 吐蕃의 횡포로 시끄럽던 변방이었는데, 설산으로 보낸 사신은 돌아오지 않고 송주에는 임금의 친위병이 주둔해있다고 하여 세상이 전쟁통임을 묘사하였다. 이별연에서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모두가 술에 취했으면 연회를 파할 수도 있으며, 하늘이 맑으면 길을 떠날 수도 있지만, 아직 취하지 않은 이도 있고 하늘에 비구름도 섞였으니 이곳을 선뜻 떠날 수도 없고 잠시 더 머물게 되니 잠깐의 헤어짐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전쟁으로 천하가 혼란스럽지만 맛난 술과 함께 홀로 노년을 보내어도 좋을법한 평안한 성도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 짧은 시간이 천금과도 같이 소중한 가치를 나타내었다.

혹자는 이 시를 두고 “두보의 칠언율시를 능숙하게 배운 이는 당나라가 마칠 때까지 다만 이상은 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거나, “이러한 구조는 진정 두보의 정통 후계이다”라고 하였으며, “분명 두보의 화신이다”라고 평하였으니,³²⁾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이상은이 두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두보를 여러모로 학습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두보의 시를 본떠 지은 〈하청에서 조씨 형제와 더불어 연회에 모여 두보를 흉내 내어(河淸與趙氏昆季讌集得擬杜工部)〉라는 시이다.

勝概殊江右,	좋은 경치는 장강 서쪽보다 특별하고,
佳名逼渭川.	아름다운 이름은 위수에 견줄만하네.
虹收青嶂雨,	무지개는 푸른 산봉우리의 비를 거두고,
鳥沒夕陽天.	새는 석양 가득한 하늘로 사라진다.
客鬢行如此,	떠나는 나그네 살짝 머리 이와 같고,
滄波坐渺然.	앉아있자니 푸른 물결이 아득하구나.
此中眞得地,	이 가운데에서 진정 땅을 얻어,
漂蕩釣魚船.	남짓배에서 정처 없이 떠다녔으면.

이 시의 저작연대는 자세히 추정할 수 없지만 시는 마치 먼 곳의 막부에서 돌아온 후 하청현에 마련된 연회에 참석하여 지은 것 같다. 전반부는 하청의 빼어난 경치를 묘사하였다. 후반부는 오랜 나그네 생활로 머리마저

32) 管世銘, 《讀雪山房唐詩鈔序例》 “善學少陵七言律者, 終唐之世, 惟李義山一人.”, 何焯, 《義門讀書記》 “如此結構, 眞老杜正嫡也.”, 張謙宜, 《視齋詩談》 “分明是老杜化身.”(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3冊, 1998, 1281-1284쪽 재인용)

희끗희끗해진 시인이 경치가 빼어난 이곳 하청에서 살만한 땅을 얻어 유유자적하게 낚시나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속 회포를 서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5·6구절은 전환으로 이어 붙여 힘을 얻었으니, 두보의 시작법이다”라고 하였으며, “신묘한 정신을 비록 모두 닳을 수는 없지만, 이미 두보의 팔구십 프로는 얻은 것 같다”라고 하거나, “전체가 노련하고 성숙되어 두보라고 할지라도 역시 이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으니,³³⁾ 두보를 닳으려 한 이상은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역대 수많은 평론가가 이상은의 시는 두보를 계승한 것임을 지적한 글이 적지 않은데, 蔡啓는 “왕형공[王安石]은 만년에도 역시 이상은의 시를 기꺼이 칭찬하여, 당나라 시인들이 두보를 배울 줄 알았지만 그 울타리를 얻은 이는 다만 의산 한 사람뿐이라고 여겼다.”라고 평했고,³⁴⁾ 何焯은 “만당의 시인 가운데, 두목과 이상은은 모두 두보의 시풍을 배웠다. 두목은 호방하고 건장하며 문장의 변화가 풍부하여 지나치게 방종함을 면할 수 없으니, 배우는 이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강서시과에 들어가 지 못하였는데, 이상은의 시가 변화하고 굴곡지며,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으며 감정과 자미가 있어 얻는 것이 많은 것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평했으며,³⁵⁾ 施補華는 “이상은의 칠언율시는 두보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따라서 농염함과 기려함 가운데 때때로 침울함을 띤다. 예를 들면 〈거듭 감회 있어(重有感)〉·〈주필역(籌筆驛)〉 등의 시편은 신운이 가득 차 있어서 곧장 승당과 입실의 경지에 오른 작품이라 하겠다. 온정균의 화려하나 진실되지 못하고, 두목의 준수하나 웅장하지 못함은 모두 이상은의 적수가 되지 못

33) 姚培謙, 《李義山詩集箋注》“第五六句轉接得力, 是杜法.”, 王壽昌, 《小清華園詩談》“神情雖不能全肖, 然已得其八九矣.”, 徐德泓·陸鳴皋, 《李義山詩疏》“通體老成, 少陵亦不過此.”(劉學鐸·余恕誠, 같은 책 5冊, 2185-2186쪽 재인용)

34) 蔡啓, 《蔡寬夫詩話》(吳文治, 《宋詩話全編》 1, 江蘇古籍出版社, 1998, 622쪽) “王荊公晚年亦喜稱義山詩, 以爲唐人知學老杜而得其藩籬, 惟義山一人而已.”

35) 何焯, 《義門讀書記·李商隱詩集》(商務印書館, 刊年不詳, 1쪽 앞면) 卷67 “晚唐中, 牧之與義山俱學子美, 然牧之豪健跌宕, 而不免過於放, 學之者不得其門而入, 未有不入於江西派者; 不如義山頓劉曲折, 有聲有色, 有情有味, 所得爲多.”

한다.”라고 평하였다.³⁶⁾ 이상은과 동시대 시인으로 두목과 온정균 등 뛰어난 시인이 많지만 유독 이상은이 독보적으로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평어는 이상은이 두보를 계승하고 두보 시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2. 韓愈

한유(768~824)는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古文으로 문장을 지었고, 괴상한 글자들을 늘어놓듯 시를 지었기에 僻字나 險韻字를 즐겨 사용하여 내용이나 형식이 난해하고 괴이하다고 인식되는 시가 많다. 한유는 또한 고인의 행적을 기록하여 그 遺德을 칭송한 문장의 碑文과 墓誌銘이 많아 문학사에서 碑誌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묘에 아첨하는 글’이란 의미의 ‘諛墓文’이라는 모멸적인 말이 담긴 일화가 전할 정도로 비문과 묘지명을 많이 썼는데, 이는 어찌 보면 한유의 문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상은이 한유를 배운 것은 주로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이다. 하나는 한유의 강경한 시어와 기이한 글자(혹은 ‘기이한 문구와 장중한 용어’라고 말함)를 배운 것이며, 하나는 한유의 기이한 정조와 기묘한 상상을 배운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말하면, 첫째는 ‘강경함[硬]’이며, 둘째는 ‘기이함[奇]’이다”고 평하였으니,³⁷⁾ 이는 이상은이 시문에서 모두 한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상은이 한유의 문체를 따라 배운 시로는 <안평공을 노래하다(安平公詩)>, <이핑이 보낸 소나무 그림에 관한 시와 글 2장을 보고서 40운을 얻

36) 施補華, 《峴傭說詩》168(王夫之等,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993쪽) “義山七律, 得於少陵者深, 故穠麗之中, 時帶沈鬱, 如重有感、籌筆驛等篇, 氣足神完, 直登其堂, 入其室矣. 飛卿華而不實, 牧之俊而不雄, 皆非此公敵手.”

37) 劉學鐸, 《李商隱詩歌接受史》(安徽大學出版社, 2004, 405쪽) “要之, 商隱學韓, 主要有兩方面: 一是學韓之硬語奇字(或曰‘句奇語重’), 一是學韓的奇情幻想, 約言之, 則一曰‘硬’, 二曰‘奇’.”

어 짓다(李肱所遺畫松詩書兩紙得四十韻), 〈우연히 운을 바꾸어가며 72구를 지어 네 명의 동료에게 주다(偶成轉韻七十二句贈四同舍)〉 등이 있는데, 이러한 長詩는 모두 한유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뚜렷하다. 이상은의 장편시 〈한유의 비문(韓碑)〉은 한유의 훈도 아래 창작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체 작품은 52구로 되어 있으며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5·6단락인 마지막 16구만 인용해본다.

.....

句奇語重喻者少,
讒之天子言其私.
長繩百尺拽碑倒,
麤砂大石相磨治.
公之斯文若元氣,
先時已入人肝脾.
湯盤孔鼎有述作,
今無其器存其辭.

嗚呼聖皇及聖相,
相與烜赫流淳熙.
公之斯文不示後,
曷與三五相攀追.
願書萬本誦萬過,
口角流沫右手胝.
傳之七十有二代,
以爲封禪玉檢明堂基.

.....

문구 기이하고 용어 장중하니 이해하는 이가 적어,
천자에게 참소하여 비문이 사사롭다고 아뢰었네.
백 자 되는 긴 줄로 비를 당겨 넘어뜨리고는,
거친 모래 큰 돌로 비문을 갈고 다듬었다네.
공의 이 문장에 마치 원기가 있는 듯,
이미 일찍이 사람들 폐부에 스며들었네.
탕의 욕반과 공씨의 정에 명문이 있었거늘,
이제는 그 기물 없어졌으나 그 글 남았어라.

오호라! 성스러운 임금과 뛰어난 재상이,
서로 더불어 환히 빛나 세상을 비춘다네.
공의 이 비문 후세에 보이지 않았다면,
어찌 현종을 삼황오제에 비할 수 있으랴?
원하건대 일만 권을 베끼고 만 번을 외워서,
입가에 거품 흐르고 오른손에 굳은살이 생기길.
한유의 비문 70년 두 대에 걸쳐 전해지니,
봉선 의식의 축문이 되며 명당의 기석이 되리라.

시의 저작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은 젊은 시절에 한유의 〈회서 평정 기념비 비문(平淮西碑)〉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시에서 한유의 〈平淮西碑〉는 세상에 겨를만한 문장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비문임을 노래하였는데, 이백여 년 후 宋나라의 蘇軾 역시 이 비문이 천추의 세월이 흘

러도 훼손될 수 없는 불후의 작품이라고 찬양하였다.³⁸⁾

제5단락은 이미 세워진 한유의 비문이 비록 李愬의 참소로 갈려지고 段文昌이 고쳐 새기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한유의 비문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서술하였다. 제6단락은 藩鎮 토벌을 명한 憲宗과 변진 토벌에 성공한 裴度的 공적, 그리고 그 과정과 공덕을 글로 표현한 한유의 비문이 지닌 불후의 가치를 찬송하였다.

한유는 古文에 능했고, 이상은은 駢文에 능했다. 또한 한유는 古體詩에 뛰어났고, 이상은은 近體詩에 뛰어났다. 대체로 이상은의 시는 구절을 다듬고 시어를 수식하여 기이함과 정교함 그리고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체로 쓰인 이상은의 시 〈韓碑〉는 근체에 능숙했던 이상은에게는 보기 드문 시체로 지어졌다. 이상은은 어린 시절 堂叔으로부터 고문을 배웠기에 평소 한유의 시문을 높이 평가했던 데다 ‘문으로써 시를 삼는다(以文爲詩)’는 한유의 시작법을 흡수하여 지은 듯한 이 시는 강건하면서도 장중하여 이상은의 여느 작품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시의 ‘문구가 기이하고 용어가 장중하다(句奇語重)’는 네 글자는 한유 시의 풍격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 시는 풍격면에서 한유의 문체를 모방하여 학습한 것으로 한유의 〈石鼓歌〉를 이을 만한 작품으로 평가되며,³⁹⁾ 이상은은 한유의 칠언고시의 뒤를 계승할 유력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

만당 시인의 古詩는 대체로 문장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중시한 詞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편 칠언고시인 이 시는 여느 만당의 고시와 비교해 보아도, 그리고 이상은의 다른 고시와 비교해 보아도 풍격이 사뭇

38) 蘇軾, 〈沿流館中得二絕句〉(孔凡禮 點校, 《蘇軾詩集》(全8冊) 卷48,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北京中華書局, 1992, 2630쪽) “회서의 공덕은 당나라에서 으뜸이고, 이부[韓愈]의 문장은 해와 달처럼 빛났네. 천년의 세월 동안 갈려 나간 비문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만, 세상에 단문창의 비문 있음은 알지 못한다네. (淮西功德冠吾唐, 吏部文章日月光. 千載斷碑人膾炙, 不知世有段文昌.)”

39) 何焯, 《輯評》(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1998, 920쪽 箋評 재인용) “한유의 〈石鼓歌〉와 더불어 기개와 풍도·기백과 기세가 대등하여 막상막하이다.(與韓石鼓歌氣調魄力旗鼓相當.)”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시어에 강건함이 느껴지면서도 시의가 정정당당하게 드러나 역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역대 평론가들은 ‘한유의 아래에 있지 않다’, ‘한유에 필진하다’, ‘한유를 능가한다’고 했으며, 또한 ‘이상은 시집을 통틀어 최고의 작품이다’고 하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⁴⁰⁾

3. 李賀

이하(780~816)는 왕실의 후예이며 뛰어난 재주 또한 갖추었으나 避諱 문제로 시험의 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벼슬길에 막혀버려 병약한 몸에서 실의와 좌절로 인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에 요절한 천재시인이다. 이하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秋來〉, 〈夢天〉, 〈苦晝短〉, 〈傷心行〉, 〈蘇小小墓〉 등 240여 수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이하가 죽은 후 이상은은 〈이하소전(李賀小傳)〉을 지어 이하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할 정도로 이상은의 이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⁴¹⁾ 세

40) 陸時雍, 《唐詩鏡》 “재주와 식견이 뛰어나고 사리에 통달하며 말이 고상하고 우아하니, 그 품격이 〈平淮西碑〉 아래에 있지 않다.(宏達典雅, 其品不在淮西碑下.)”, 杜詔, 杜庭珠, 《中晚唐詩叩彈集》 “이상은의 고체시는 기이하고 아름다워 장길의 시와 대단히 닮은 곳이 있는데, 유독 이 시만은 곧장 퇴지[韓愈]에 필진한다.(義山古詩奇麗有酷似長吉處, 獨此篇直逼退之.)”, 賀裳, 《載酒園詩話又編》 “〈韓碑〉 시 역시 한유를 대단히 닮았으며, 〈石鼓歌〉의 기개를 얻었으며, 어구를 골라 사용한 것은 한유를 능가한다.(韓碑詩亦甚肖韓, 得石鼓歌氣概, 造語更勝之.)”, 李因培, 《唐詩觀瀾集》 “옥계의 시는 정교함과 화려함으로 훌륭하지만, 이 시만은 유독 예스럽고 질박하며, 순전히 義氣로 나아가니 문구가 기이하고 용어가 장중하여, 곧장 올라가 한유의 비문을 뒤따르려고 하니, 시집을 통틀어 최고의 작품이다.(玉谿詩以纖麗勝, 此獨古質, 純以氣行, 而字奇語重, 直欲上步韓碑, 乃全集中第一等作.)”(劉學鍇·余恕誠, 같은 책, 1998, 920-922쪽 箋評 재인용)

41) 李商隱, 〈李賀小傳〉(劉學鍇, 앞의 책, 2265쪽) “…… 恒從小奚奴騎馿驢, 背一古破錦囊, 遇有所得, 卽書投囊中. 及暮歸, 太夫人使婢取囊, 出之, 見所書多, 輒曰: ‘是兒要當嘔出心始已耳.’ 上燈與食, 長吉從婢取書, 研墨疊紙足成之, 投他囊中. 非大醉及弔喪日, 率如此. …… 嗚呼, 天蒼蒼而高也, 上果有帝耶? 帝果有苑囿宮室觀闈之玩耶? 苟信然, 則天之高邈, 帝之尊嚴, 亦宜有人物文采愈此世者, 何獨番番於長吉, 而使其不壽耶? 噫! 豈世所謂才而奇者, 不獨地上少, 卽天

단락으로 나뉜 이 글에서 이상은은 시가 창작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매일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하여 가슴의 피를 토하듯이 시를 지었으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錦囊詩人’ 시인으로도 불렸던 시인 이하의 일생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27년의 짧은 생을 살고 떠난 시인에 대한 위로를 드러내었는데, 회재불우의 울분 속에 생을 마감한 이하의 인생을 한탄하였으며,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던 세상을 개탄하였다.

〈李賀小傳〉 이외에 이상은에게는 이하의 시를 본떠 지은 것임을 밝힌 5연 6구의 〈장길을 모방하여(效長吉)〉라는 고시가 있다.

長長漢殿眉,	길고 긴 한나라 궁궐의 눈썹,
窄窄楚宮衣.	좁디좁은 초나라 궁녀의 의복.
鏡好鸞空舞,	거울이 좋으나 난새는 공허하게 춤추고,
簾疎燕誤飛.	주렴이 성기니 제비가 잘못 날아든다네.
君王不可問,	군왕에게 감히 여쭙지도 못하고,
昨夜約黃歸.	지난밤 황색 분을 바르고 돌아왔다네.

이 시는 이하의 宮體詩를 본떠 지은 6句의 짧은 古詩이다. 처음 네 구는 여인이 곱게 단장하였으나 홀로 외롭고 쓸쓸히 지내는 것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연은 지난밤에도 여느 때처럼 곱게 단장하고 군왕을 기다렸으나 허사였음을 말했다. 총애를 잃은 여인의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고독과 슬픔을 나타내었다. 이상은과 이하 두 시인이 모두 21세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경력이 있었으니, 전체 시는 궁녀가 총애를 잃어버린 것을 빌려 자신이 과거에 낙방한 것에 대한 원망을 묘사하였다.⁴²⁾

上亦不多耶? 長吉生二十四年, 位不過奉禮太常中, 當世人亦多排擯毀斥之. 又豈才而奇者, 帝獨重之, 而人反不重耶? 又豈人見會勝帝耶?”

42) 鄭在瀛, 《李商隱詩集全註》(武漢大學出版社, 2001, 34쪽) “大和七年, 義山二十一歲, 是年試進士, 爲考官賈餗所斥, 未中. 李賀二十一歲到長安準備應進士試, 被讒, 不得不放棄應試. 兩人的命運何其相似! 故詩題獨標明效長吉, 通篇借宮娥失寵寫自己落第之離騷. 義山有多篇效李賀風格的作品, 均不以效長吉爲題.”

실제 이상은과 이하 두 사람은 비슷한 운명을 가졌다. 첫째는 李淵의 종씨 이상은과 鄭王의 후예 이하는 모두 왕실의 후손임을 자부하였으나 가세가 몰락하여 곤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나이에 진사시에 응시하였으나, 이상은은 시험관 賈餗에게 배척당해 급제하지 못하였고, 이하는 元稹의 避諱 문제 제기로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비단 주머니에 철새 없이 아름다운 시구를 주워 담았던 이하는 錦囊詩人으로 불렸으며, 온갖 서적을 섭렵하며 아름다운 시구를 찾으려 애썼던 이상은은 獺祭魚로 불렸으니,⁴³⁾ 이는 두 사람의 시작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시가 창작에 대한 열의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두 시인은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은 이하에게 분명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하를 통해 자신을 보았을 것이다.

‘기묘하고 궤변하다[奇詭]’고 평가받고 있는 이하의 시는 기묘하고 독특한 구상과 기괴하고 아름다운 시어로 시를 지어 시의가 심원하다. 줄곧 병마와 회재불유의 좌절감 혹은 부조리에 대한 항거였을까? 鬼氣 서린 귀신의 세계까지도 시의 소재로 사용하여 종전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귀신과 유령까지도 시의 소재로 사용하여 기괴한 환상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신화, 강렬한 색채 감각, 귀기 서린 시어 등을 요소로 하는 천재적 시상을 맘껏 발휘하였다. 당대를 뛰어넘어 중국 시단에서 ‘鬼才’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이는 이하만의 독특한 풍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상은의 고체시에 나타난 이러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시풍은 이하를 닮았는데, 〈봄비(春雨)〉, 〈연대시, 네 수(燕臺詩四首)〉, 〈푸른 기와(碧瓦)〉, 〈하양의 시(河陽詩)〉, 〈바다 위의 노래(海上謠)〉 등은 모두 이하의 시체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

43) 吳炯, 《五總志》(藝文印書館, 刊年不詳, 17쪽 뒷면) “당나라 이상은이 시문을 지움에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많이 검사하고 살펴보았기에 좌우를 비늘이 차례로 잇닿은 것처럼 쌓아두었는데, 당시 이를 일러 말하기를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唐李商隱爲文, 多檢閱書史, 鱗次堆積左右, 時謂爲獺祭魚.)”

역대의 비평가들은 “이하의 시는 위로는 두보와 한유를 계승하였으며 아래로는 이상은을 열어주었다. 웅장하고 심원하며 빼어나고 위대하여, 만 가지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규모와 의도는 뛰어나게 일가를 이루었으니, 당대의 다른 시인이 능히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⁴⁴⁾ “이의산은 이하의 시체를 모방하여 5·7언 고시를 지었는데, 이는 바로 하나의 시험이요 하나의 훈련으로, 이상은은 이하의 고시 속의 상징 수법을 옮겨와 사용하여 율시를 지었고, 기묘하고 괴이한 것을 처량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율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으며, 한 시대의 풍격을 수립하였으니, 이는 의산이 스스로 창조한 것이자 스스로 성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나라의 율시를 논하는 자들은 두보 이후로는 의산을 가장 뛰어난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⁴⁵⁾ 이는 모두 이상은이 이하의 시에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이상은은 흔히 뛰어난 재주를 품었으나 시대를 잘못 만난 懷才不遇의 문인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상은은 사회적으로 영달한 문인이 아닌 자신과 비슷한 조우를 겪었던 문인들에게 더 동병상련의 감정을 지녔던 듯하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는 고독한 시대에 태어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인으로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知己와의 교유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은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선배 문인들의 문학적

44) 吳闓生, 《跋李長吉詩評注》(王友勝·李德輝校注, 《李賀集》, 岳鹿書社, 2003, 412쪽) “昌谷詩上繼杜韓, 下開玉溪, 雄深俊偉, 包有萬變, 其規撫意度, 卓然爲一大家, 非唐之它家所能及.”

45) 董乃斌, 《李商隱的心靈世界》(上海古籍出版社, 2012, 267쪽) “繆鉞先生論云: ‘李義山摹李賀體作五七言古詩, 乃一種嘗試, 一種訓練, 其移用李賀古詩中象徵之法作律詩, 變奇詭爲凄美, 爲律詩開闢一新境界, 豎立一代風格, 乃義山自己之創造, 自己之成就. 故論唐代律詩者, 於杜甫之後, 以義山爲大宗.’”

재능을 존경하여 이를 학습하고 모방하면서 시를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교유하며 그들과 벗하고자 하였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천지를 뒤집을 포부를 가졌으나 결국 영락한 조우와 떠돌이 생활로 외롭고 쓸쓸한 일생을 살아가야 했던 이상은에게 그들은 비록 같은 시기를 살며 같은 이상을 가지고 함께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로 화답할 수는 없었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서로를 위로할 진정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용납되지 못한 불우한 신세를 겪은 옛 문인들의 인생에서 거울을 마주한 듯 자신을 보았으며, 그들이 걸어왔던 삶의 흔적과 그들이 삶의 체험을 통해 남긴 시들을 되뇌며 그들의 삶을 동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지닌 역대의 문인 중 唐代 이전의 문인으로는 宋玉·阮籍·潘岳·庾信에 대한 모방과 애정이 남달랐고, 唐代 선배 문인으로는 杜甫·韓愈·李賀 등이 이상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서도 이상은은 시에서 종종 賈誼·司馬相如·曹植 등의 문인을 언급하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는데, 이들 문인의 불우했던 생애를 통해 재주가 있었음에도 쓰임 받지 못한 울분, 목이 타는 듯한 천거를 향한 갈망과 세간의 의심을 받는 원망, 앞날이 막혀버린 막막함 등을 표현해내었다.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 이상은은 본고에서 언급된 唐代의 선배 문인들과는 달리 동시대인인 白居易와는 직접적인 교유가 있었다.⁴⁶⁾ 나이 18세의 이상은과 58세의 백거이는 40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었으나, 백거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묘지명을 이상은에게 부탁하여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니,⁴⁷⁾ 백거이가 이상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을 것이라

46) 謝思輝, 〈白居易與李商隱〉(文學遺產, 1996, 29-30쪽) “商隱初次拜見居易, 最有可能在大和三年四月至十一月間。居易與令狐楚一向友誼深厚, 此年有〈令狐尚書許過弊居見贈長句〉(《白氏文集》卷57)等詩, 商隱來見或曾經過令狐楚的紹介。此後至會昌六年(846)辭世前, 居易一直未離開洛陽。商隱應舉從幕, 多次往來京、鄭之間, 路經洛陽, 會昌五年又短暫歸居洛陽, 都有可能再與居易相見。”

47) 李商隱, 〈형부상서에서 물러나시고 상서우복야에 추증되신 태원 사람 백거이

검작되는데, 두 시인의 교류와 영향에 관한 탐구 역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⁴⁸⁾

< 참고문헌 >

- 권용호, 《초사》, 글항아리, 2015.
 서봉성, 《李義山詩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1994.
 심규호, 《완적집》, 동문선, 2012.
 이관성, 《杜詩鏡銓》, 문진, 2013.
 이지운·김준연, 《이의산시집》(上中下), 학고방, 2018.
 이철리, 《역주시품》, ㈜창비, 2007.
 최신희, 《문심조룡》, 현암사, 1975.
 歐陽修·宋祁, 《新唐書》, 中華書局, 1975.
 董乃斌, 《李商隱心靈世界》, 上海古籍出版社, 2012.
 劉學鐸, 《李商隱詩歌接受史》, 安徽大學出版社, 2004.
 劉學鐸, 《李商隱傳論》, 安徽大學出版社, 2002.
 劉學鐸·余恕誠, 《李商隱文編年校注》, 中華書局, 2002.
 劉學鐸·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1998.
 劉學鐸·余恕誠·黃世中, 《李商隱資料彙編》, 中華書局, 2001.

님의 묘비명, 서문과 함께(刑部尚書致仕贈尚書右僕射太原白公墓碑銘并序)(劉學鐸·余恕誠 앞의 책, 2002, 1807쪽) “公以致仕刑部尚書年七十五會昌六年八月薨東都。賜右僕射，十一月遂葬龍門。子景受，大中三年自潁陽尉典治集賢御書，侍太夫人宏農郡君楊氏來京師，胖胖兢兢，奉公之遺，畏不克既，乃件右功世，以命其客取文刻碑。……”

48) 김준연의 <바이그램(bigram) 분석을 통한 《전당시》 상용 어휘 연구>(《中國文學》, 2024) 4.3 ‘시인 간 바이그램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보면 이상은과 백거이의 유사도는 0.1877로 두보(0.1714)보다 높다. 그러므로 이상은이 백거이의 시를 학습하였을 가능성을 크게 열어둘 수 있지만, 이상은의 시에서 백거이를 언급한 시를 찾아볼 수 없기에 본고의 고찰에서는 잠시 제외하였다.

- 劉熙載, 《藝概》, 廣文書局, 1964.
- 蘇軾, 《蘇軾詩集》(全8冊, 孔凡禮 點校), 中華書局, 1992.
- 辛文房, 《唐才子傳》, 藝文印書館, 刊年不詳.
- 吳炯, 《五總志》, 藝文印書館, 刊年不詳.
- 吳文治, 《宋詩話全編》, 江蘇古籍出版社, 1998.
- 吳調公, 《李商隱研究》, 上海古籍出版社, 1982.
- 王友勝·李德輝, 《李賀集》, 岳鹿書社, 2003.
- 鄭在瀛, 《李商隱詩集今注》, 武漢大學出版社, 2001.
- 陳引馳, 《梁啓超學術論著集》, 華東師範大學, 1998.
- 何焯, 《義門讀書記》, 商務印書館, 刊年不詳.
- 김준연, 〈바이그램(bigram) 분석을 통한 《전당시》 상용 어휘 연구〉, 《中國文學》, 2024.
- 이주희, 〈이상은시역주〉(1-36), 《中國語文學譯叢》, 嶺南大中國文學研究室, 2004년~2023년.
- 李平權, 〈悼與自悼的悲情哀歌—李商隱的幾首悼亡詩探析〉, 《皖西學院學報》, 2005.
- 謝思輝, 〈白居易與李商隱〉, 《文學遺產》, 1996.

< Abstract >

Lishangyin, who had both splendor and melancholy, accepted their poetry style, inherited and learned it, and reflected it in his works. Lishangyin inherited the tradition of “Book of Odes” and “The Verse of Chu” to strengthen the literary soil. He had extraordinary imitation and affaction for Songyu, Ruanji, Panyue, Yuxin who were the writers before the Tang Dynasty and as senior writers, he had a strong inheritance and

respect for Dufu, Hanyu, Lihe. Because he encountered the wrong era though he had outstanding talent, Lishangyin seems to have felt more sympathy for the writers who were in a similar position to him than the writers who were socially high and noble. He must have want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 friend who would truly know himself as he was born in this lonely era without knowing him. Thus Lishangyin respected the literary talents of senior writers back in time, learned and imitated them, and tried to make friends with them by teaching them in his own way through poetry. Although they could not talk openly about what's in their heart with the same ideals while living through the same period, they were friends who knew the true heart to comfort each other with the same pain. Lishangyin saw himself as if facing a mirror in the lives of old writers who suffered unaccepted hardships in the world, sympathized with their lives and comforted their hearts by repeating the traces of their lives and poems they left behind their experiences, and he was also comforted. Not a few of Lishangyin's more than 600 existing poems refer to poets who were seniors before the Tang Dynasty or in the Tang Dynasty, and their works.

Based on the works mentioned by these writers in the poem,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origins of Lishangyin's poetry.

Key Words : 李商隱(Lishangyin), 宋玉(Songyu), 阮籍(Ruanji), 潘岳(Panyue), 庾信(Yuxin), 杜甫(Dufu), 韓愈(Hanyu), 李賀(Lihe)

